

1. 심리검사란

인간의 심리적 특성 중 어느 한 속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수수께끼같은 사람의 마음을 밝혀 내려고 무척이나 애를 써 왔다. 심지어 주술이나 점술같은 신비력에 의존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밝혀 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심리 테스트이다.

심리 테스트는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수단인 동시에, 수수께끼같은 사람의 마음을 해명하려는 20세기 과학기술의 도전이다.

2. 심리검사의 목적

ㄱ. 예측 : 한개인의 미래 행동을 예측

ㄴ. 진단 : 학업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를 규명

ㄷ. 조사연구 : 연구의 목적으로 연구자가 실시함

ㄹ. 개성이나 적성 발견 : 진로지도 및 학업지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

3. 심리검사의 신뢰도

대체적인 경향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잡지에 실려 있는 심리 퀴즈로 온전한 심리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심리일 경우는 예상과 빗나가는 일이 매우 많다.

흥미를 끄는 제목들은 여럿 있지만 기실 내용이 지극히 비과학적이라는 점에서, 즉 실험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인터넷의 심리테스트들은 대개 장난감에 불과하다.

심리 테스트는 이 계통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정도의 정확성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그 테스트가 그 사람에게 정말 적당한가 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진정 순수한 반응을 보여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성격검사에서 어떤 질문이건 ‘예’하고 대답하는 순종형도 있으며, 무슨 질문이건 ‘모른다’, ‘어는 쪽이건 상관없다’라고 대답하는 우유부단형도 있다.

또는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에서 의도적으로 생각하여 답변하는 사람도 있다.

심층심리를 알아내는 투사법 테스트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통계적, 과학적 실증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행하는 사람의 해석 여하에 좌우되

는 경우가 가끔 있다.

심리 테스트가 인간이해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도 계속 발전하는 과정에 있지 때문에 진정한 직업적 전문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심리테스트가 신뢰와 권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물론, 기존 이론이나 용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직 심리학 이론 체계에 들어오지 않은 '미지의 현상'을 발견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제대로 된 심리테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최대 난관이 바로 이 발견의 과정이다. 특정 현상을 측정하는 심리테스트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려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기존의 연구 도구로는 측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미지의 현상'을 이해하는 작업에는 비단 심리학뿐만 아닌, 여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헌들이 총집결된다. 연구자들은 수많은 문헌을 통해, 그리고 나름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미지의 현상'이 가진 특징들을 잘 반영하리라 기대되는 문항들을 만든다. 이때 수십, 수백의 예비 문항들이 만들어진다. 예비 문항은 연구자들 간의 합의로(평정자 간 신뢰도 등 이 과정에도 통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혹은 요인 분석 등의 통계적 절차로 추려지고, 최종 선별된 문항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현장 검증 과정을 거쳐 완성된 심리테스트가 된다.

내가 보는 심리테스트가 믿을 만 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인터넷 심리테스트는 열에 아홉이 사기지만, 그중에는 실제로 연구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활용하는, 제대로 된 심리테스트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짜 심리테스트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심리테스트를 발견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할까? 가장 먼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제시된 심리테스트 결과 표시 하단에 '출처'가 표시되어있는지 여부다.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심리테스트라면 필시 근거 논문이 있을 터이다. 심리테스트에 보다 관심이 많은 독자라면 이 '출처'를 통해 심리테스트의 과학성을 보다 자세히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터넷에서 우리가 보는 심리테스트들에는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심리테스트 시작 시점과 진행 도중에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심리테스트의 정식 명칭이 노출되면 테스트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응답에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 윤리 준수의 차원에서 심리테스트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심리테스트의 본래 목적을 알리는 것이 맞을 것이다). 출처가 없는 심리테스트,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정공법', 혹은 '꼼수'.

'정공법'은 말 그대로 심리테스트의 정식 출처를 찾아내려는 일련의 노력들을 지칭한다. 학술 저널 등에 해당 심리테스트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논문이 존재하는지 찾아본다. 막막할 때는 미약한 단서라도 잡기 위해 구글 등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공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곤하다. 출처를 잡기 위해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논문 사이트들을 뒤지고 다녀야만 한다. 그렇게 노력하더라도 꼭 정확한 출처를 찾을 수 있으리란 보장도 없다. 그래서 정말로 꼭, 제대로 이 심리테스트의 진위 여부를 파헤쳐보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한 정공법을 선택하기란 어렵다.

시간도 없고, 정공법을 선택할 만한 동기부여도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약간의 '꼼수'를 통해 그 심리테스트가 제대로 된 것인지 가늠해볼 수 있다. 물론 '꼼수'에 해당하므로 이것만을 가지고 각종 심리테스트들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 이 정도의 지침만 가지고 있어도, 일상에서 가짜 심리테스트에 속아 넘어갈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가짜 심리테스트를 구별해내는 꼼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극단적인 수식어

'매우', '항상' 등의 표현을 문항에 포함시키면 응답값의 분포는 한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나는 나 자신을 한심하다고 느낄 때가 매우 많다' 문항의 경우, 실제로 스스로를 한심하게 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을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를 한심하게 보고 있는 사람 또한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나는 한심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매우' 많은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 문항에는 동의할 수 없어.'와 같이 생각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2. 두 개 이상의 알맹이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며 잘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나는 외향적이고 친구가 많다.

한 문항에는 하나의 알맹이만을 담아야 한다. 여러 개의 알맹이를 담고 있다면, 그 한 문장은 필히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응답자가 도대체 어떤 알맹이에 대해 동의/비동의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예를 들어보자. '실패에 대해 두려워하며 잘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는 문항에는 두 개의 알맹이가 포함되어 있다. '실패에 대해 두려워함', '잘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림'. 만약 이 항목에 A가 '매우 동의함'이라 응답했다면 우리는 그 응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실패에 대해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잘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다는 말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번에는 '나는 외향적이고 친구가 많다'는 문항을 한 번 보자. 외향적이지만 친구가 많이 없는 사람은 이 문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혹은 친구가 많지만 스스로를 외향적이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의 문항에 너무 많은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심리테스트의 타당성을 충분히 의심해 보아야 한다.